



뜬구름 잡던 예비법조인에게 구체적 지평을 열어준 시간들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며

“

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절차로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 박은영
강사님의 말씀처럼 당사자의
'감정의 해소'가 있었습니다.

”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방송 관련 일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했을 정도로 저에게 방송과 언론은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 후 막연히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꿈만 가진 채 학과공부 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구체적으로 언론과 법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 될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방송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은 점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예비법조인 실무수습 과정은 제 목표를 구체화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틈없이 짜인 강의일정과 조정참관과정 그리고 모의토론회를 포함한 모든 커리큘럼은 구체적 갈등국면에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구제를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매우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소위 '언론법'이 어떻게 사건에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즉,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언론사건에 적용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갈등 해결방식을 배울 적에는 매우 신선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법대를 다니면서 주로 배운 것은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변호사인가는 그러한 이기는 논리를 얼마나 잘 학습하여 현실에 적용하는가로 가려졌고 판결로 승소와 패소가 갈릴 뿐 그 과정에서 대화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격과 방어방법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당사자부터 원고와 피고가 아닌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불립니다. 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절차로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 박은영 강사님의 말씀처럼 당사자의 '감정의 해소'가 있었습니다. 딱딱한 법정에서 법 논리의 다툼이 아닌 양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소통할 장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Zero-Sum이 아닌 Win-Win의 방식으로 갈등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조사관과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열한 법 논리 보다 신뢰관계형성과 협상의 기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수프로그램 마지막 날 진행된 모의토론회에서는 가상의 사례해결을 통해 그간 배운 실무실습의 내용을 확인, 점검, 발휘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중재위원님들께서 두 팀으로 나뉘 이루어진 조정·토론절차를 참관하고 그에 대해 논평을 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연수생이 많아 발언 기회가 많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구체적 사건을 통해 실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마치 변호사가 된 듯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논평 덕분에 중강의 기쁨과 어우러져 설렘 위주의 기억으로만 남을 뻔한 마지막 행사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 넣을 수 있어서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언론중재절차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연수생들과의 우정도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해주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직원분들과 특별히 이번 연수과정 내내 어떠한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교육본부 교육운영팀 김운정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